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197-238
<https://doi.org/10.29212/mh.2026..140.19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6

미 육군 작전연구소의 6·25전쟁 관련 조사·연구 활동

정용욱 | 서울대 역사학부 명예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조사·연구 활동
 3. 심리전 연구
 4. 맺음말

초 록 미 육군 부설 작전연구소(ORO)는 1948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립된 민간 주도형 연구 조직으로, 6·25전쟁 발발과 함께 전선에 민간 과학자와 전문가를 대거 파견했다. 전쟁 기간 150명 이상의 ORO 인력이 극동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에서 활동했으며,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교전 지역에 배치되었다.

ORO의 현장 연구는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한 연구·권고안 생산과 추후 광범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졌다. 연구 범위는 무기·장비 성능 분석, 기갑 작전, 근접 항공 지원, 병참, 원자폭탄의 전술적 활용, 한국인 인력 동원·관리, 민사·군정 등 전술적·전략적 과제 전반을 포괄했다.

그 가운데 심리전 연구가 전체 과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폴 라인바거가 설계한 심리전 연구 틀 아래, ORO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전개했다. 하나는 전단·라디오 방송 등 심리전 작전의 조직·운용·효과 평가였고, 다른 하나는 레싱 칸이 주도한 표적 취약성 분석이었다. 후자는 부산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북한군·중국군 포로를 심리측정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적의 심리적 취약성을 체계화한 것으로, 미군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포로 실험이었다.

ORO의 심리전 연구는 6·25전쟁이 내전이자 이념전쟁이라는 성격을 지녔기에 전술 심리전의 효과를 넘어 냉전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로까지 나아갔다. 머레이 다이어의 종합 평가서는 심리전을 ‘정치적 소통’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국가 통치술의 핵심 도구로 격상시킴으로써, ORO의 6·25전쟁 심리전 연구는 전술적 연구에서 출발해 냉전기 전략 심리전 수행 체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주제어(Key Word) : 작전연구소(ORO), 6·25전쟁, 심리전, 표적 취약성 분석, 전쟁포로, 폴 라인바거, 레싱 칸, 김길준, 냉전 지식 생산, 정치적 소통

1. 머리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하여 무기, 작전, 교리, 전략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했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종전 후 이들이 본업으로 복귀하고, 활동을 조직했던 미국 정부의 과학연구개발처가 해체되면서 미군의 작전연구 조직이 크게 축소되고, 그 기능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무기의 복잡성 증가, 자원의 희소성, 원자력 시대와 냉전의 위협 속에서 미군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작전연구(Operations Research)를 필수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인식했고, 새로이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¹⁾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작전연구소는 미 육군이 과학적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0년

1) ‘작전연구’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탄생했다.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의 군사과학이 주로 무기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적 연구였다면, 작전연구는 이미 개발된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보다 주목했다. 즉, 작전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법들이 기업 경영과 공공 행정 분야로 도입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일종의 학문 체계로 발전했다. 민간에서는 ‘경영과학’, ‘운용연구’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Florence N. Trefethen, “A History of Operations Research,” in Joseph F. McCloskey and Florence N. Trefethen, *Operations Research for Manag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4) 참고. 2차 대전 직후 미 육군 작전연구 조직과 기능의 부활, ORO 창설 과정에 대해서는 Charles R. Schrader, *History of Operations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rmy Volume I: 1942-6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MH, 2006, 55~68쪽 참고

대 후반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 특화된 연구 조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48년 6월 작전연구소(ORO, Operations Research Office)가 설립되었다. ORO는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 주도형 연구 조직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학 수준의 연구에 부합하는 지적 독립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 지향적인 우수 인재들을 정부 관련 업무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²⁾

초대 소장인 엘리스 존슨(Ellis A. Johnson) 박사는 2차 대전 시기 해상 기뢰전 연구의 선구자로서 ORO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했다. 그는 민간 과학자의 독립성과 전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을 주장하며, 과학자가 후방이 아닌 전선의 실제 데이터와 지휘관의 요구에 직접 응답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민간계약 형태의 조직 구성은 군의 관료적 제약에서 벗어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의 전략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탄생시켰다.³⁾ 존슨 소장은 물리학자 등 자연과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사회과학자, 다수의 여성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폭넓은 연구기반을 마련했다.⁴⁾

6·25전쟁이 발발하자 존슨 소장은 이 전쟁이 ORO에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6·25전쟁이 첫째, 현장에서 유엔군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기회, 둘째,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을 위한 실제

2) Charles R. Schrader, 위의 책, 65쪽. 처음에는 일반연구소(General Research Office)로 호칭했으나 '일반연구'라는 명칭이 조직의 전문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48년 12월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작전연구소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3) 위의 책, 73~75쪽

4) 위의 책, 67쪽

현장 자료 수집의 기회, 셋째, 육군이 작전연구소의 역량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ORO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일본과 한국으로 파견하여 현장에서 미 육군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육군부와 극동군사령부(FEC)는 그의 연구진 현장 파견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 휴전까지 150명 이상의 ORO 인력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었다.⁵⁾

6·25전쟁은 미군 작전연구 기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나 ORO의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나 국내 학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이 글은 작전연구소의 6·25전쟁 관련 조사·연구 활동 일반과 심리전 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미 육군 군사처가 펴낸 『미 육군 작전연구의 역사 1권: 1942-62』, ORO 후신기관인 연구분석공사(Research Analysis Corporation)가 펴낸 약사는 ORO의 6·25전쟁 연구에 대한 기초적 사실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참고해야 한다.⁶⁾ ORO 관련 자료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채 공개되지 않아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지만, ORO가 작성한 6·25전쟁관련 보고서의 일부분을 그나마 열람할 수 있는 문서고로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II) 소장 미 육군 군수처 연구개발부 문서철,⁷⁾ 미 육군대학(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 도서관,⁸⁾ 존스 홉킨스 대학 셰리단 도서관(Sheridan Libraries)⁹⁾ 세 곳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기술정보센터(Defense Technical

5) 위의 책, 86쪽

6) Charles R. Schrader, 위의 책; Charles A. H. Thomson, *The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 A History of a Federal Contract Research Center*, McLean, Virginia, RAC, 1975

7) NA II, RG 15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Ordnance, Record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Division (A1, Entry 1143A-B)

8) <https://usawc.libguides.com/current>

9) <https://aspace.library.jhu.edu/repositories/3/resources/936>

Information Center)는 국방부 산하의 연구 결과물을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인데, 이곳에서 ORO와 RAC가 간행한 6·25전쟁 또는 한국 관련 문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검색, 열람할 수 있다.¹⁰⁾

2. 조사·연구 활동

존슨 소장과 4명의 ORO 팀은 유엔군의 낙동강 전선 돌파 직전인 1950년 9월 초 한국에 도착했다. 1950년 말 ORO 인력의 본진인 약 4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사회과학자,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행정부서의 핵심인원들로 구성된 8개의 ORO 팀이 극동군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했다. 주요 인력은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참모부(G-3)에 배속되었으며, ORO는 전구(戰區) 내 인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1951년 6월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 공식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설치했다. 6·25전쟁 휴전 시점까지, ORO 전체 전문 인력의 50% 이상이 교전 지역에서 근무했다. 연구소 절반 이상을 교전 지역으로 옮겨왔다. 1950년 9월부터 1953년 7월 사이에 총 150명 이상의 ORO 직원, 하청업체 직원 및 고문이 한국과 일본에서 복무했다.¹¹⁾

6·25전쟁 기간 중 ORO 전문가들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안 산출이었고, 다른 하나는 추후 진행될 더 광범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었다. ORO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직면한 문제 중 일부는 2차 대전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다. 현장에서

10) <https://discover.dtic.mil/>

11) Charles R. Schrader, 앞의 책, 86쪽

수행된 ORO 연구들은 익숙한 형태의 무기 분석이거나 동계 의류 및 장비의 설계와 사용 같은 구체적인 실무 문제를 다루었으나 실제 연구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광범했다. 원자폭탄의 전술적 활용,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기갑 작전, 보병 무기 및 전술, 병참, 한국인 인력의 동원과 활용, 전투 지원 활동, 대게릴라 작전, 그리고 심리전 작전과 같은 주제들을 두루 포함했다.¹²⁾

1950년 12월 말까지 ORO의 전문가들은 이미 1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추가로 24건의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ORO는 한국에서 미 육군 작전에 관해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다.¹³⁾ 먼저 파견 초기에 전선의 미8군사령부 작전참모부(G-3)에 배속된 연구진이 조사하고 분석한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미8군사령부 배속 ORO 작성 기술각서 목록

	제 목	제출 일자	과제분류
T-1	Radio in Korea	1951. 1. 31	PROJECT 4
T-2	A Preliminary Study of North Korean and Chinese Surrenders	1951. 2. 27	PROJECT 4
T-4	Evaluation of Effects of Leaflets on Early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¹⁴⁾	1951. 2. 20	PROJECT 4
T-5	Military Application of Polygraph Technique	1951. 1. 26	PROJECT 4
T-6	Preliminary Evaluation of Psywar Leaflets and Broadcasts from IPOR POW Interrogations	1951. 2. 22	PROJECT 4
T-7	Notes on Infantry Tactics in Korea	1951. 2. 28	PROJECT 5
T-8	North Korean Logistics and Methods of Accomplishment	1951. 2. 13	PROJECT 7

12) 위의 책, 86~87쪽

13) 위의 책, 86쪽

14) “T-3(EUSAK), Evaluation and Analysis of Leaflet Program in

T-10	North Korean Propaganda to South Koreans (Civilian and Military)	1951. 2. 1	PROJECT 4
T-12	Mechanical Reliability and Combat Zone Fuel Logistics of UN Tanks	1951. 2. 28	PROJECT 7
T-13	A Proposed Joint Intelligence Center for the Selection of Targets in Air Support and Ground Action	1951. 2. 28	PROJECT 7

전가: “RAC Publications List”,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 McLean Virginia, 1961, 29~30쪽

ORO는 파견 초기에 일련번호로 과제를 분류했다. 미8군사령부에 배속된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는 모두 10건인데 ‘PROJECT 4’로 분류한 심리전 관련 보고서 6건, 아군과 적군의 병참을 분석하고, 아군의 지상과 공중 지원 활동 개선을 권고한 ‘PROJECT 7’이 3건, ‘PROJECT 5’로 분류된 보병 전술 분석 보고서가 1건 있다. 결과물은 모두 1951년 1~2월에 제출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관한 연구이자 권고안인 셈인데, 심리전 관련 보고서가 10건 가운데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시기에 ORO는 작전연구를 크게 전투작전, 병참·비용, 배경 연구, 일반 연구, 특별 연구로 분류했다.¹⁵⁾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 배속된 연구진이 수행한 주요 과제들을 분야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전투작전은 무기와 장비, 정보, 조직, 전술, 교리 등을 분석했고, 배경 연구는 사회, 문화, 민사, 환경, 국제전략, 경제, 정치 등을 다루었다. 특별 연구는 연구 개발과 관리, 작전연구 방법론,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극

the Korean Campaign June - December 1950”는 T-4와 같은 문서로 보인다. 목록에 따라 ‘T-3’에 ‘T-4’ 제목이 나타나기도 한다. 1950년 6~12월 사이 미군이 살포한 전단의 효과를 북한군 포로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Charles R. Schrader, 앞의 책, 100쪽

동군사령부에 배속된 연구진이 수행한 특별 연구는 없다. 일반 연구는 인력의 선발, 훈련, 관리 및 심리전, 특수전과 반란활동을 다루었다.

〈표 2〉 미 극동군사령부 배속 ORO의 분야별, 주제별 작성 문헌 개황

분 야	연구 주제	과제 번호	편 수
전투 작전	PROJECT 1, 2, 3, 5	R-1, 2, 3/ T-5, 9, 13, 22, 23,	8
	DOUGHBOY	T-18, 43, 58	3
	TEAR	T-32, 33, 37, 49,	4
	COMCOM	T-45	1
	SHOP	T-44, 52	2
	TACIT	T-53, 54, 55, 56, 57	5
	기 타	T-41(DAS-6 FAST), T-46(DAS-7 INTERA), T-71(Study 62.2B), T-75(AFFE)	4
병참· 비용	PROJECT 7 TREMABASE	T-6, 15 T-47	2 1
			3
배경 연구	LEGATE	T-48	1
일반 연구	PROJECT 4	T-2, 3, 4, 7, 10, 11, 12, 17, 20, 21, 27, 29, 62	13
	POWOW/ PARABEL	T-14, 16, 19, 26, 28, 30, 31, 34, 35, 36, 39, 40, 42, 50/ 64	15
	PROJECT 8	R-34	1

전거: "RAC Publications List";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Special Studies and Field Operations to May 31, 1952," ORO, 1952. 7. 28.

〈표 2〉에서 Project 1은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Project 2는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 Project 3은 기갑전술을 연구했다. Project 4는 심리전, Project 5는 보병전투, Project 7은 병참, Project 8은 한국인 군인과 노무인력 활용, Project 8(Special)은

인민군 병참 연구였다.¹⁶⁾ ORO는 1949년부터 연구 주제를 작전명을 부여하듯이 특정 단어와 용어로 분류했는데, 극동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에서 수행한 현장 연구의 일련번호 주제 분류가 일정 시점부터 ORO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주제 분류로 통합되었다. <표 2>에서 DOUGHBOY는 보병 무기, TEAR는 지상군 작전에 대한 항공 지원, COMCOM은 통신, SHOP은 인적 요인, TACIT은 정보, TREMABASE는 병참과 운송, LEGATE는 군정 또는 민사, POWOW는 심리전, PARABEL은 게릴라전과 연관된 주제들이었다.¹⁷⁾

과제 번호 앞에 붙은 ‘R’, ‘T’, ‘S’는 문서 작성 형식과 취급 요령을 나타낸다. ‘R’은 보고서(Report), ‘T’는 기술각서(Technical Memorandum), ‘S’는 참고각서(Staff Memorandum)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최종 간행물이고, 기술각서는 연구의 특정 단계나 단편적 측면을 다룬다. 보고서는 군 지휘부에 배포되었고, 기술각서는 실무 및 교리에 반영되었다. 참고각서는 예비적 연구 결과나 내부 검토용 자료였고, 기초 자료 축적용으로 작성되었다.¹⁸⁾ ORO의 연구 과제들은 대체로 참고각서로 시작해서 기술각서로 발전하거나 통합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에 따르면 극동군사령부에 배속된 ORO 연구진이 전쟁기와 전쟁 직후 제출한 6·25전쟁 관련 연구결과물은 모두 60편인

16)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129~171쪽

17) Charles R. Schrader, 앞의 책, 73, 98쪽; “RAC Publications List”, 236쪽

18) ORO에서 ‘S’는 ‘Staff Memorandum’을 가리킨다. 후신 기관인 RAC는 같은 형식을 ‘SP’(Staff Paper)로 표기했다. “RAC Publications List”, vii~viii쪽 및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ORO Documents Published by FEC and EUSAK as of 15 September 1951” 참고

데, 심리전을 다룬 PROJECT 4와 POWOW가 28편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투작전을 다룬 보고서 27편보다 많다. ORO가 설립된 1948년 7월부터 1954년 6월 사이에 수행한 작전연구 분야별 과제 비율은 전투작전 44%, 병참·비용 19%, 배경 연구 11.5%, 일반 연구 17.5%, 특별 연구 8%였다.¹⁹⁾ 극동군사령부에서 수행한 작전연구 중 심리전, 게릴라전, 한국인 인력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룬 일반 연구의 비율이 거의 절반이고, 같은 시기 ORO가 수행한 전체 작전연구 중 일반 연구 비율 17.5%의 거의 세 배에 육박한다. ORO의 6·25전쟁 현장 연구가 심리전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ORO 본부 작성 주제별 연구과제

연구 주제 (편수)	과제 번호, 제목, 제출 일자
DOUGHBOY (2)	R-13,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Winter of 1950-51 (1952. 10) T-190, Operation Punch and the Capture of Hill 440, Suwon, Korea, February 1951 (1952. 9)
LEGATE (5)	T-184, Civil Affairs in Korea, 1950-51 (1952. 8) T-211, Economic and Related Political Factors in Civil Affairs Operations Republic of Korea (1953. 1) T-264, Civil Affairs Relations in Korea (1955. 2) T-270, Korean Claims Against the United States - Finan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a Settlement (1954. 6) T-285, Army Payments in Korea - An Inquiry into the Financing of Military Procurement (1954. 8)
TREMBASE (1)	T-258, A Survey of Helicopter Operations, Maintenance, and Supply in Korea (1954. 6)
FECOM (1)	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 (1955. 1)

19) Charles R. Schrader, 앞의 책, 100쪽

Studies (8)	T-278, Tank-vs-Tank Combat in Korea (1955. 2) T-299, Artillery Target Acquisition in Korea, 1953 (1955. 7) T-306, Army Procurement and Payment of South Korean Labor (1955. 8) T-336,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a Local National Army - Based on Experie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6. 8) T-355, The KMAG Advisor: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s in Korea (1957. 2) T-356, Language Problems of the Army During Hostilities in Korea (1958. 1) T-363, Integration of ROK Soldiers into US Army Units (KATUSA) (1958. 2) SP-138, Projected Situation Scenario, Korea (1960. 4)
----------------	--

전거: "RAC Publications List";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표 3〉은 ORO 본부에 제출된 6·25전쟁과 한국 관련 과제 목록이다. 1954년까지 제출된 8편은 기존 주제 분류를 따랐으나 1955년 이후 제출된 9편은 'FECOM' 또는 'Study 번호'로 표기되었다. 1955년 이후 제출된 과제의 주제를 분류하면 전투 분석 1, 기갑전투 1, 포격전 1, 인사 1, 민사 4, 모의전쟁(war game) 1이다.²⁰⁾ 전체 17편 중 모의전쟁 포함 전투작전 6편, 민사 9편, 인사 1편, 병참 1편이다. 워싱턴의 연구는 도교와 전선의 현장 연구에 비해 민사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민사는 주로 한국인 군인과 노무인력의 동원, 관리 등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었고, 인사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관련 과제였다. 1955년 이후 제출된 과제들은 주로 종전 이후 주한

20) SP-138, "Projected Situation Scenario, Korea"는 2급 비밀로 분류된 모의전쟁 시나리오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AC Publications List", 111쪽

미군 주둔, 유지와 관련한 문제들이었고, 그로 인해 민사 관련 비중이 크게 늘었다.

미8군사령부에서 수행한 과제들은 화급한 전선의 필요를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관한 연구 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성격을 가졌고, 전선 파견 직후인 1950년 9월부터 1951년 1, 2월 사이에 수행되었다. 극동군사령부의 과제들은 진행 중인 작전에 관한 연구 외에 추후 진행될 더 광범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포함했으며, 전술적 필요 외에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같이 수행했다. 극동군사령부의 현장 연구는 1950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결과물이 1953 회계연도가 끝나는 1954년 중반까지 대부분 제출되었다. ORO 본부의 연구는 6·25전쟁기 전투작전, 병참,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평가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찾고, 이를 장래의 군사적 대비태세(preparedness)와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동시에 전후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야기되는 민사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1952년 후반부터 1960년 4월 사이에 결과물들이 제출되었다.

전체적으로 ORO의 6·25전쟁 현장 연구는 무기와 장비 개선, 전술과 교리에 대한 평가, 새로운 전술과 교리의 도출 등 전술적 필요에서 출발해서 전략적 요구 사항이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연구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연구가 수행된 공간적 차별성, 즉, 미8군사령부, 극동군사령부, ORO 본부의 주요 관심사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개별과제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었지만 대체로 수행기관 별 관심사에 따라 다른 과제들과 일정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ORO-T-7(EUSAK), 「한국에서 보병 전술에 대한 기록」과 ORO-T-190, 「1951년 2월 편치 작전과 수원 440고지」, ORO-R-13, 「한국의 동계 전투에서 보병 작전 및 무기 사용 분

석」은 세 편 모두 마셜(S. L. A. Marshall) 고문이 작성했다. ORO-T-7(EUSAK)는 미8군사령부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1951년 2월 결과물이 제출되었고, ORO-T-190은 1952년 9월, ORO-R-13는 1952년 10월 결과물이 제출되었다. ORO-R-13의 초고는 「1950-51년 한국에서 보병 작전 및 무기 사용에 관한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1951년 10월에 제출되었고,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목이 수정된 최종판이 나왔다.²¹⁾ 이 일련의 연구는 보병의 전투 행동, 개인 및 공용 화기 사용의 효율성, 군사 정보 및 통신 체계의 실제 운용 사례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1950년 11월 하순에서 1951년 2월 사이에 미군이 청천강, 장진호, 수원 인근 404고지(Operation Punch)에서 중국 인민지원군과 치른 전투를 분석했다.²²⁾ 보고서는 전투에 참여한 보병 636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²³⁾

보고서는 극한의 추위라는 환경적 요인이 무기 성능과 병사들의 사기에 끼친 영향, 또 기존의 선형 방어체계에서 사주방어(Perimeter Defense)로 바뀐 전술 변화, 보병과 전차 간 합동작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²⁴⁾ 이 연구는 한국의 산악 지대에서 동상에 노출된 보병의 동계 피복 문제와 보호 장비에 관한 보고서

21) ORO-T-7(EUSAK), "Notes on Infantry Tactics in Korea"(1951. 2. 28); ORO-T-190, "Operation Punch and the Capture of Hill 440, Suwan Korea Feb 1951", 1952. 9; ORO-R-13, "Commentary of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1951. 10. 27); ORO-R-13, "Analysis of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during the Winter"(1952. 10)

22) 미군의 청천강 전역과 장진호 전역, 펀치 작전에 관해서는 Spencer C. Tucker ed.,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Checkmark Books, 2002, 106~112, 146~147, 539쪽 참고

23)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158~159쪽

24) 앞의 ORO-R-13, "Commentary of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1951. 10. 27) 참고

를 참고하는 등 전투작전 관련 다른 연구들과 연동하여 진행되었다.²⁵⁾ 미군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빈총 교체, 수류탄 훈련 강화, 야간 조명 장비 개선 등 장비 및 보병 훈련의 변화를 추진했다. 이 연구는 실전 경험 분석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작전연구의 전형적 사례였고, 중국의 참전 이후 미군이 치른 주요 전투에서 중국군이 구사한 전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극동군사령부에서 수행한 연구 중 보고서 형식으로 간행된 결과물은 <표 4>와 같이 모두 네 건이다.

<표 4> 미 극동군사령부 배속 ORO 작성 보고서

	제 목	연구 개시 / 제출	과제 분류
R-1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 & II	1950. 7/ 1951. 7, 8	PROJECT 3, ARMOR
R-2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1950. 9/ 1951. 7	PROJECT 1
R-3	Preliminary Evaluation of Close Air Support Operations in Korea	1950. 9/ 1951. 8	PROJECT 2
R-5	Utilization of Indigenous Manpower in Korea	1950. 7/ 1951. 8	PROJECT 8

전거: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129~146, 165~167쪽

네 건은 전선에 파견된 ORO 연구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과제들이다. ORO가 현장에 처음 파견된 것이 1950년 9월인데, 기갑 작전에 관한 연구인 R-1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연구

25) 이 보고서와 연관된 보병 장비 관련 연구로 ORO-R-5, ALCLAD Final Report “Protection of the Soldier in Warfare,”(Draft Report Completed 1 Aug 1951) 참고.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158쪽; “RAC List”, 3~10쪽, ‘Study-Title Index’, 10쪽. ‘ALCLAD’는 보병 장비 관련 연구를 가리키는 과제분류 명칭이다.

를 시작했다.²⁶⁾ 다른 세 건의 연구는 모두 1950년 9월에 연구를 시작했고, 네 건 모두 1951년 7, 8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R-1과 근접항공지원작전에 관한 R-3는 전선의 화급한 요구를 반영한 과제였지만, 현장 연구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과제들에 원자무기의 전술적 활용(R-2)과 한국인 인력 활용(R-4)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R 1~4가 보여주듯이 ORO의 현장 연구는 전선의 화급한 요구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과제 목록에 올렸고,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구역량을 배정했다. 아직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기 이전 시점에서 ORO는 원자무기의 전술적 활용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과제로 선정했고, 과제 번호 1번(Project 1)으로 지정했다. 또 전쟁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한국인 토착인력 활용 문제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 과제는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후 미군이 한국에 상시 주둔하면서 군정과 민사 관련 과제(LEGATE)로 이어졌다.

Project 1은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몇 주 안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표준운영절차는 필요한 정보의 분석, 폭발의 군사적 효과 및 효율성, 그리고 자체 안전조치를 포함했다. 이 연구는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Project 2 근접항공지원작전 연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2 보고서 초고는 1951년 3월 1일 간행되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및 수많은 요약본들이 당시 미 육군, 공군 및 원자력위원회(AEC)의 핵분열성 물질 생산 증대 및 전술적 용도의 신형 원자무기 개발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²⁷⁾

ORO는 R-2 외에 “ORO-T-1(FEC) Tactical Employment

26)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143쪽

27) 위의 자료, 129~134쪽.

of the Atomic Bomb in Korea(TEABK)”라는 기술각서도 간행했다. R-2와 T-1은 미군 장교들이 전술적 핵무기 사용 및 운용법을 배우던 미군 최대의 핵무기 전문 교육 및 전략 기지였던 샌디아 기지에서 6·25전쟁 당시 실시된 참모장교 훈련과정의 기본 참고자료였다.²⁸⁾ 아직 중국군 참전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원자폭탄의 전술적 활용 연구는 소련 또는 중국 군대가 북한군을 지원할 경우 이 연구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ORO의 현장 연구는 전투작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장차 미군의 군사적 대비태세에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ORO의 현장 연구는 전선의 필요성, 군사적 대비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구,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민사 연구도 수행했다. 1952년 8월 ORO 본부에 제출된 ORO-T-184, 「한국에서 민사 작전, 1950-51」은 다윈 스톨젠바흐(C. Darwin Stolzenbach)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모든 지역에서 점령정책 및 구호조치를 실행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미8군이 한국에 파병된 초기에는 민정 관련 조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1년 뒤에는 4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 민정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²⁹⁾ 6·25전쟁 초기의 작전 환경은 군사적 필요성, 파탄 난 경제, 그리고 신생 주권국가의 정치적 현

28) 두 문서는 아직 기밀이 해제되지 않았다. 연구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를 통해서 연구 목적, 주요 내용,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50년 12월 22일 간행된 ORO-T-1 연구에는 존슨 소장, 마셜 준장도 참여했다. “ORO Documents Published by FEC and EUSAK as of 15 September 1951,” ORO, FEC, 1쪽. 이 과제는 연구 과정에서부터 ‘배포금지, 일급비밀’로 분류되었다. 샌디아 기지는 미국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시 남동쪽에 있다. “Sandia Base,” https://en.wikipedia.org/wiki/Sandia_Base

29) “ORO-T-184, Civil Affairs in Korea, 1950-51”, 1쪽

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장이었다. 질병, 기아, 사회 불안 예방, 피난민 통제, 피난민 행렬에 섞여 침투하는 게릴라 활동을 억제하고, 후방 지역 안정 유지 등 민사 작전이 군사 작전의 부수적인 지원 기능이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전투 효율성에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구성 요소였다.³⁰⁾

이 연구는 1950년에서 1951년 9월까지 6·25전쟁 초기 미 육군이 수행한 민사 작전 경험을 분석하여, 미래 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현대전에서 군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의 불가분성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육군이 정치적 이유로 주권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분쟁 초기 단계에서 민사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그 협정은 작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육군이 수락한 책임에 상응하는 해당 지역의 내부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라고 권고한다.³¹⁾

이 연구는 한국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 내부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민사 작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연구의 배경과 결론 모두 군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의 불가분성을 강조했다. 미군은 2차 대전 중 다른 주권국가 내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추축국 대 연합국이라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 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분쟁은 대부분 주권국가 내부의 전쟁이었다. 이 연구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국외에서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은 더 이상 주권국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주권국가 내부의 분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30) 위의 자료, 9~13쪽

31) 위의 자료, 2~4쪽

위해서는 민사가 중요하다는 군사와 정치의 불가분성을 거듭해서 환기시킨다.

이 연구는 미 육군과 ECA 등 미국 정부의 여러 기구, UNKRA, UNCURK, UNCACK 등 유엔 기구들, 그리고 한국 정부 등 민사 행정에 관여한 기관들 간의 지휘계통 혼선이 시스템 상으로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스톨젠바흐가 추구한 시스템 분석을 떠올리게 한다.³²⁾ 이 연구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민사 작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군사 지휘관 아래 ‘단일 책임소재’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또 한국 정부를 완전히 주권국가로 대우하려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외교 방침이 오히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원 낭비를 통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전시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미군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지 경제와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즉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이러한 권고와 주장은 무력(군사력)과 협상(외교)을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제질서라는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로 보고,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권한이 분산된 복잡한 관료제에 집착하지 말고 중앙집권화 된 권위의 사용을 선호했던 키신저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³⁴⁾

ORO는 6·25전쟁 휴전 후에도 민사, 군정 관련 연구를 계속 이어갔다. <표 3>에서 제시한 T-306, T-336, T-356, <표 4>에서 제시한 R-4 등은 스톨젠바흐와 키신저의 연구에서 지적했던 한국 군대 육성, 노무인력 활용,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32) 위의 자료, 16~21쪽

33) 위의 자료, 18~23쪽

34) Harvey Starr, *Henry Kissinger: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4, 5, 65쪽

3. 심리전 연구

ORO 현장 연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심리전 연구를 설계한 것은 폴 라인바거(Paul M. A. Linebarger)였다. 1950년 9월 간행된 그의 ORO-T-2 「극동군사령부 심리전 작전연구 주제 제안」은 (1) 정규적인 심리전 작전, (2) 고위 지휘부가 고려해야 할 심리전 정책, (3) 연합작전에서 심리전 운용, (4) 특수 연구의 4가지 영역에서 ORO가 자문과 개선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³⁵⁾

그는 심리전 작전 운용에서 선전의 양과 질 향상 및 작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와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포로 심문 및 여론 조사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민심을 파악할 심리전 전문가 팀과 작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작전연구 팀의 투입을 제안했다.³⁶⁾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고위 지휘부가 군사 및 공보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이는 고위 참모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선전의 주제와 방식에 대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 이념적 선전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자극하라고 권고했다.³⁷⁾ 라인바거는 또 도시 폭격, 탈영 유도, 게릴라전 등의 연합작전에서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³⁸⁾

라인바거는 특수 연구가 유념할 세 가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

35) 미 국립문서관(NA II),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ntelligence, Document Library Branch, Box 2129, "ORO-T-2, Possible Operations Research in FEC Psychological Warfare," 1950. 9. 14, by Paul M. A. Linebarger, 1~3쪽

36) ORO-T-2, 3~5쪽

37) 위의 자료, 5~8쪽

38) 위의 자료, 8~11쪽

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세뇌’ 연구를 꼽았다. 둘째, 6·25전쟁뿐만 아니라 미군이 맞닥뜨린 지구적 전략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자료의 수집을 제안했다. 셋째, 적절한 참모 부서와 절차, 문서화된 양식, 결정 구조를 만들고, 현재의 상황 평가에 선전 효과를 덧붙여서 전략적 차원에서나 전술적 차원에서 작전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³⁹⁾ 라인바거의 제안은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작전 운용이나 ORO의 심리전 연구를 생각하면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각서는 ORO가 심리전 전술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전구 지휘부에 전략적 고려사항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장래 군과 정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예시했다. 중국이 아직 참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세뇌 연구를 본격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나, ORO의 연구가 전구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군이 맞닥뜨릴 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ORO의 심리전 연구는 대체로 이 각서가 설정한 목표와 궤도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심리전 연구진은 미8군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미군이 수행한 전단, 라디오 심리전을 평가하고, 북한군 중국군의 항복 동기, 북한의 대남 선전 효과 등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미8군사령부에서 수행한 초기 연구는 당면한 전술적 필요에 따른 예비적 조사·연구 활동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실제 심리전 작전을 관찰, 분석한 결과를 제출했다. ORO 연구진은 현장 연구를 수행하면서 점차 심리전 조사·연구 활동의 영역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범주화했다. 크게 구분하면 하나는 심리전 작전(조직, 정보, 운용, 교리) 평가와

39) 위의 자료, 11~13쪽

개선 방안 연구, 심리전 효과 평가, 다른 하나는 표적 분석 및 취약성 연구다.

ORO는 창설 직후인 1949년부터 POWOW라고 불리는 심리전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미 육군은 심리전을 전술적 차원에서 인식했다. ORO는 2차 대전의 경험과 자료에 충분한 지식 기반이 있다고 가정했으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설정했던 연구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진행 중인 실제 작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했다. ORO는 작전연구를 기본적으로 계량적·수학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연구로 보았으나 실제 연구를 시작하자 심리전 분야의 핵심 변수들이 수치화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활용을 제시했고, 사회과학자들 중심의 연구진 구성을 공식화했다. ORO 연구진은 미8군사령부와 극동군사령부에서 심리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관찰하면서 진행 중인 작전과 그 효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했고, 다른 한편으로 표적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북한군, 중국군 포로 심문을 통한 자료 수집,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의 적용 등이 이 방향의 연구를 구성했다. ORO의 POWOW에 대한 내부적 평가인 ORO-SP-51 「POWOW 기술각서들: ORO 심리전 연구 평가」는 이 두 가지를 연구의 직접적인 기여로 꼽았다. 이 각서는 머레이 다이어와 줄리어스 시겔이 작성했다.⁴⁰⁾

먼저 심리전 작전과 효과 평가 관련 주요 기술각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¹⁾

40) ORO-SP-51, The POWOW TMs: An Assessment of ORO Psywar Research, by Murray Dyer & Julius Segal, 1955, 12~30쪽,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Barracks 소장

41) “RAC Publications List”, 20~30쪽

- T-3, US Psywa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George S. Pettee, 1951. 1.
- T-4, Strategic Radio Psywar in FEC, Murray Dyer, 1951. 1.
- T-10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sywar Personnel in Lower Levels of Eighth Army, William E. Daugherty, 1951. 9.
- T-11, Immediate Improvement of Theater Level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Far East, Paul M. A. Linebarger, 1951. 6.
- T-17, Eighth Army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Willmoore Kendall, Lawrence F. O'Donnell, John Ponturo, 1952. 1.
- T-20, FEC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Radio, Wilbur Schramm, 1952. 6.
- T-21, FEC Psychological Warfare: Leaflets, David E. Ambrose, Gerard Hinrichs, Willmoore Kendall, Peter K. Ogloblin, John Ponturo, 1952. 8.
- T-27, FEC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Theater Staff Organization, Willmoore Kendall, John Ponturo, 1952. 9.
- T-28, FEC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Intelligence, John Ponturo, Willmoore Kendall, 1952. 9.

위에서 T-10, 11, 17, 27은 심리전 수행 조직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각서들이다. 극동군사령부는 심리전 작전을 전술심리전과 전략심리전으로 구분했고, 전자의 수행 매체로 전단, 후자의 수행 매체로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T-4, 20, 21은 전단과 라디오 방송을 통한 극동군의 심리전 작전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심

리전 작전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T-28은 극동군의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이 심리전 작전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T-3는 개전부터 1950년 연말에 이르기까지 6·25전쟁 초기 미군의 심리전 작전 전반을 평가했다.

위 목록에서 필자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월모어 켄달(Willmoore Kendall)이 심리전 작전 분석과 효과 평가를 주도했다. ORO-SP-51은 “심리전 작전 평가 시리즈와 관련하여 POWOW가 월모어 켄달의 의장 재임 시기에 극동군사령부에서 수행한 작업이 우리의 현재 지식수준에서는 진행 중인 심리전 작전을 아군 측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미래의 모델로 자리 잡게 했다.”라고 평가했다.⁴²⁾ 그는 위 목록에서 보듯이 심리전 작전 전체를 조직에서부터 라디오 방송 운용, 전단 배포, 참모 구조, 정보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표적 분석 및 취약성 연구 관련 주요 기술목록은 아래와 같다.⁴³⁾

T-2(EUSAK), A Preliminary Study of North Korean and Chinese Surrenders, Lessing A. Kahn, 1951. 2.

T-4(EUSAK), Evaluation of Effects of Leaflets on Early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Kilchoon Kim, Ellis. A. Johnson, 1951. 2.

T-6(EUSAK), Preliminary Evaluation of Psywar Leaflets and Broadcasts from-IPOR POW Interrogation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Research, Inc., 1951. 2.

T-10(EUSAK), North Korean Propaganda to South Korea (Civilian and Military), Fred H. Barton, 1951. 2.

42) ORO-SP-51, 81쪽

43) “RAC Publications List”, 20~30쪽

- T-12, An Evaluation of Psywar Influence on North Korean Troops, IPOR, 1951. 7.
- T-14,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 Soldier Reactions to UN Weapons in the Korean War, Lessing A. Kahn, 1952. 2.
- T-16, Evaluation of Psychological Warfare Influence on Chinese Communist Troops, IPOR, Revised by Willmoore Kendall, 1953. 1.
- T-19, Pretesting Procedures for Psychological Warfare Printed Media. Phase I: The Group Interview Method, Lessing A. Kahn, Julius Segal, 1952. 11.
- T-26, Attitudes of US Combat Troops in Korea Toward the Taking and Treatment of Chinese and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Lessing A. Kahn, Florence K. Nierman, 1952. 11.
- T-30, An Investigation of Individual Factors Relating to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Warfare, Thomas G. Andrews, D. D. Smith, Lessing A. Kahn, David E. Ambrose, David J. Carpenter, 1952. 11.
- T-31, A Study of Chinese and North Korean Surrenderers, Lessing A. Kahn, Florence K. Nierman, 1953. 2.
- T-34, A Study of North Korean and Chinese Soldiers'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r, Lessing A. Kahn, Theodore R. Vallance, Joanne E. Jackson, Florence K. Nierman, Julius Segal, 1953. 2.
- T-39, Beliefs of Enemy Soldiers About the Korean War, IPOR, 1953. 1.
- T-40, Psychological Warfare and Other Factors Affecting the Surrender of North Korean and Chinese Forces, Lessing A. Kahn, Julius Segal, 1953. 9.

T-42, A Study of Enemy Soldier Attitudes Toward Communism, American Democracy and the United Nations, Julius Segal, 1954. 2.

미군 전술 심리전의 1차적 목표는 당연히 적군의 항복 유도였다. 따라서 심리전의 일차적 대상 표적(target)은 북한군, 중국 참전 이후는 북한군과 중국군이다. 그렇다면 ORO 연구진은 심리전 작전의 효과 측정, 적의 취약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대상 표적인 북한군과 중국군을 향해 수행한 심리전 작전 횟수와 투항 포로의 숫자를 비교하여 작전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 빈도 대비 투항 포로 수치 비교 같은 조사 방식을 전술적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흥미롭게도 연구진은 심리전 효과 측정, 적 취약성 연구에 전쟁포로들을 면접하여 이들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위 목록 제목들에서 보듯이 포로가 된 적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미군 측 심리전 효과, 포로의 항복 동기, 적군의 전쟁 인식과 이념적 성향 등을 측정, 분석했다. 미군은 심리전 대상 표적을 동시에 심리전 연구 대상이자 검증 협력자로 이용한 것이다. 포로수용소가 ORO 연구진의 실험실이었다.

T-2(EUSAK) 「북한군·중국군 항복에 관한 예비 연구」가 표적 분석과 취약성 분석의 출발점이었고, 이 연구를 시발로 T-30 「심리전 효과 관련 개인 요소 조사」, T-31 「중국군·북한군 항복 연구」, T-34,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군·중국군 태도 연구」, T-40 「북한군·중국군의 항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전과 기타 요소 연구」, T-42 「공산주의·민주주의·유엔에 대한 북한군·중국군 태도 연구」 등이 이어졌다. 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레싱칸(Lessing A. Kahn)이 표적 분석과 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발하

고 연구를 이끈 주도자였다.⁴⁴⁾

칸은 심리측정학(psychometrics) 훈련을 받은 POWOW 부의장이었다. 심리측정학은 심리학의 세부 전공으로 심리적 변수의 측정, 검사 도구 설계, 통계적 방법론을 핵심으로 한다.⁴⁵⁾ ORO의 내부 평가서는 T-40과 T-42를 표적 취약성 연구의 전형으로 꼽았다.⁴⁶⁾ T-42의 필자는 줄리어스 시겔(Julius Segal)인데, 시겔은 칸의 지도 아래 연구 후기 단계에서 칸과 책임을 분담했다.⁴⁷⁾

T-42 「공산주의·민주주의·유엔에 대한 북한군·중국군 태도 연구」는 북한군 포로 3,182명, 중국군 포로 1,919명 모두 5,101명을 대상으로 통역관이 질문하고, 포로들의 응답을 자료로 확보해서 분석했다. 연구 목적은 적의 심리적 취약성 측정이었고, 심리전과 포로 재교육을 위한 자료 확보라는 실용적 목표가 연구를 지배했다. 질문 항목 설계는 서울대 교수진 등 남한 지식인들이 공산주의(C), 민주주의(D), 유엔(U)에 관해 제안한 애초의 900개 항목을 여러 차례 압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4개를 선택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CDU 척도를 모두 미국식 민주주의를 긍정적 준거점으로 해서 설정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44) ORO-SP-51, 47~49, 59, 70~71쪽

45) “Psychometrics”, <https://en.wikipedia.org/wiki/Psychometrics>. 레싱 칸은 심리학을 전공했고, 1950년대 초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구는 주로 태도 측정(Attitude Measurement)과 통계적 분석 방법론에 집중되었다.

46) ORO-SP-51, 48쪽

47) 위의 자료, 47, 71쪽. 줄리어스 시겔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작가, 강연자로 활동했다. 미 국방부의 의뢰로 전쟁 당시 북한 및 중국 측에 포로로 잡혀 세뇌(Brainwashing)를 겪은 미국인 포로들에 대한 공식 연구를 수행했고, 1956년에 “한국에서 미 육군 포로들의 협력 및 저항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Factors related to the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behavior of U.S. Army PW's in Kore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59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에서 근무했다. “Julius Segal,”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160924741/julius-segal>)

있다.⁴⁸⁾

이 연구는 나름대로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자료 수집이나 분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연구가 발견한 적군의 태도와 취약성의 특징을 들면 첫째, 적군 가운데 집단별로 취약성에 차이가 있다. 북한군 장교, 북한군 사병, 중국군 사병, 중국군 장교의 순으로 친공산주의 성향이 점차 약해졌고, 북한군 장교단은 전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친공산주의 집단이었다. 둘째, 전투 경험에 비선형적 효과가 있다. 5~6개월 전투 경험까지는 친공산주의 성향이 강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역전되는 곡선화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교육 수준의 엇갈린 효과이다. 중국군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반공 성향이 강하지만, 북한군은 정반대였다.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북한 사병 중 신병을 우선 공략하라’든가, ‘유엔을 인류의 희망으로 묘사하는 선전 메시지를 활용하라’는 등 심리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추천했다.⁴⁹⁾

이 연구는 전투가 한창이던 1951년 3월과 9월에 5,101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으로 실시되었다. 전쟁 중 북한군 약 90,000명, 중국군 약 21,00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 1/20에 가까운 포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중국군 포로의 경우 약 1/10에 가까운 포로가 실험에 참여했다. 미군 역사상 그렇게 많은 적군 포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례는 그때까지 없었고, 표적 취약성 연구는

48) ORO-T-42, 7~12쪽. 질문 항목은 48~50쪽. 이 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6·25전쟁기 미군 심리전 관련 자료집』 III, 선인, 2005에 수록되어 있다. 인용 면수는 원래 문서 쪽수를 나타낸다. 표본의 출처는 부산 및 거제도 포로수용소였다. 많은 한국인 지원자들 가운데 이력서 검토와 면접을 통해 면접관을 채용했고,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을 살핀 뒤 선발했다. 교사, 학생, 회계사, 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선발되었다. 대부분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했고, 영어도 잘 이해했다. 1951년 3월에는 17인, 9월에는 19인이 선발되었다.

49) 위의 자료, 3~5쪽.

포로 심문을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심리측정학의 실험 도구로 변환한 최초의 시도였다.

ORO-P-51은 칸이 주도한 표적 취약성 연구를 ORO의 ‘기존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개척적 작업’으로 추켜세웠다.⁵⁰⁾ 이 연구는 냉전기 미국 심리전 체계가 어떻게 과학적 합리성의 언어를 빌려 구축되었는지 보여주는 실물 사례였다. 그러나 연구진이 주어진 자료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했다. 흔히 지적되는 한계 중 첫 번째는 포로라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다. 투항했던 전투 과정에서 사로잡혔든 포로는 이미 전투에서 이탈한 집단이고, 실제 전선의 북한군, 중국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측정 도구 자체가 포로의 이념적 성향을 취약성 척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를 규범으로 설정하여 반공은 곧 친민주주의, 친민주주의는 곧 친유엔이라는 등식을 전제했다. 이는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측정이 아니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포로들의 방어적이거나 거짓된 응답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포로들에게 응답을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지만⁵¹⁾ 강압적인 수용소 환경에서 확보한 응답의 타당성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ORO의 6·25전쟁 심리전 연구의 출발점이 라인바거가 작성한 ORO-T-2 「극동군사령부 심리전 작전연구 예상 주제」였다면, 연구의 종착점은 머레이 다이어와 줄리어스 시걸이 작성한 종합 평가서 ORO-SP-51 「POWOW 기술각서들: TMs: ORO 심리전 연구 평가」였다. 그런데 T-2는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전의 주제와 방식에 대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이념적 선전보

50) ORO-SP-51, 47~49, 71쪽

51) 위의 자료, 21쪽

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휘부와 심리전 담당자들에게 권고했다. 반면 SP-51은 장교와 사병으로 세분화된 표적의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친화성을 표적 취약성 분석의 척도로 삼았다. 작전 효과와 표적 취약성은 분석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평가의 척도가 상호모순 된다. 만약 ORO의 심리전 연구가 출발점에서 가졌던 경험법칙이 귀결점에서 바뀐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른 한편으로 SP-51도 인정했듯이 “외국어가 사용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 과학적 방법론만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인간 관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평범하고 오래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⁵²⁾ 미국인 심리전 연구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에는 익숙했지만 적군 또는 적국인 북한과 중국의 정치·사회나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렇다면 ORO 연구진은 ‘부족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

ORO가 생산한 심리전 관련 문헌 가운데 한국인이 필자로 등장하는 문건이 세 건 있다. ORO-T-1(EUSAK) 「한국의 라디오」(1951. 1), ORO-T-3(EUSAK) 「북한군 초기 포로에 대한 전단 효과 평가」(1951. 2), ORO-T-7 「한국 인민의 간추린 역사」(1951. 3)가 그것이다. 필자는 김길준(Kilchoon Kim)이다. ORO-T-3(EUSAK)은 ORO 소장 엘리스 존슨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세 편의 기술 각서를 간행하기 이전인 1950년 10월 ORO-S-68 「한국에서 심리전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⁵³⁾ ORO 현장 연구진은 파견 초

52) 위의 자료, 44쪽

53) <표 1> 목록 참고. “ORO-T-7,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은 컬럼비아 대학교 C. V. Starr East Asian Library, Theodore Richards Conant Collection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 수집을 도와준 신희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ORO-S-68, Recommendation for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는 『자료집』 I, 23~28쪽에 수록

기에 그에게 질문지 작성, 포로 심문과 통·번역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길준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당시 한국의 주일대표부 참사관이였다. 그의 역량과 활용가치를 알아본 ORO는 그를 미국에 초청해서 고문으로 활용하려 했다. 1951년 9월 도미할 예정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고 방미는 성사되지 않았다.⁵⁴⁾

S-68은 심리전 작전 관련자들과 ORO 연구진을 위해 작성했는데 내용이 무척 흥미 있다. 이 문건은 “공산군은 정규전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게릴라전에 능숙하고, 산악 지대에 숨어 있는 낙오병들은 우리 후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문건은 1950년 10월 8일에 간행되었는데,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시작하고,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유엔군이 한창 북진 중이었고, 북한군은 퇴각을 거듭했지만 김길준은 낙오병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에 대한 심리전을 강조했고, 동시에 북한군이 유격전에 능숙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지난 몇 년간 공산 유격대는 최소한의 식량만으로도 산악 지대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전쟁이 그 이전부터 지속된 갈등의 연장선이자, 북한군이 유격전에 익숙하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⁵⁵⁾

그는 북한군을 항복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아시아에

54) 그는 해방 후 미군정 공보국장, 정부 수립 후에는 교통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김을한, 『그리운 사람들』 삼중당, 1961, 105~115쪽 및 『인생잡기』 일조각, 1989, 111~112쪽. 그는 부인, 아들과 함께 1951년 7월 15일 하코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주일대표부 참사관 김길준 씨 서거」 『서울신문』 1951. 7. 23; 김을한, 「고 김길준 군을 보내며」 『서울신문』 1951. 7. 27.

55) ORO-S-68, 1쪽

서 오랫동안 일했던 선교사들의 관찰을 인용했다. “일본인은 권위를 가지고 냉담하게 다루어야 하고, 중국인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며, 한국인은 어깨를 토닥여주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열정적인 이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인데 북한 전투원들은 바로 그 연령대이고, “항복 아니면 죽음”과 같은 형식의 전단은 오히려 그들의 광적인 애국심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북한군을 항복하게 만들려면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자격을 갖춘 한국인에게 전단이나 방송 자료 작성을 맡길 것을 권했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북한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또 “우리는 그들이 공산주의에 현혹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고도 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권고한다.⁵⁶⁾

그는 모든 북한군 병사들은 평균 연령이 23세 이하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남한과 유엔은 미국의 세계 지배의 도구라고 교육 받았고, 전술적 효과를 위해서나 장기적인 정치적 개선을 위해서나 이들을 설득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전의 주체가 미국보다는 유엔이 되어야 하며, 선전의 양을 늘이되 북한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남한 점령기에 남한의 보통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행동했음을 환기시키면서 한국군은 정복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⁵⁷⁾

이 문건은 짧지만 전쟁의 성격, 북한군의 전술과 병사의 구성, 병사의 존재방식 및 그들의 심리상태와 행동양식, 바람직한 심리전 메시지와 수단, 효과적인 작전 실행방식과 유의사항 등을 요령

56) 위의 자료, 1~3쪽

57) 위의 자료, 3~4쪽

있게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ORO의 심리전 현장 연구를 설계한 라인바거처럼 이념적 선전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자극할 것을 건의했다. 심리전 연구를 혁신했다고 치켜세웠던 표적 취약성 분석 각서에 나타난 ‘북한 사병 중 신병을 우선 공략하라’든가, ‘유엔을 인류의 희망으로 묘사하는 선전 메시지를 활용하라’는 권고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전쟁 초기에 작성한 그의 건의안이 전쟁 이전 미군정기에 공보국장을 지냈던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 중국군 포로들을 심문하며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양자의 결합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인으로서 그의 경험칙이 ORO의 심리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4. 맺음말

미군이 6·25전쟁에 보낸 것은 병력과 물자만이 아니었다. 미 육군 부설 작전연구소는 전쟁 초기인 1950년 9월부터 전선에 민간인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인력의 절반가량이 전쟁 기간 중 극동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ORO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관한 연구 및 권고안 생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추후 진행될 더 광범위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었다. 임무를 연구의 쓰임새로 무미건조하게 분류했지만 ORO가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무기와 장비의 성능 분석과 개선, 전술과 교리 평가 등 전술적 필요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ORO의 연구는 보병 무기·장비, 기갑 작전, 지상군에 대한 근

접 항공 지원, 병참, 한국 지형에 필요한 전술과 교리, 심리전 작전 효과 및 적 취약성 연구 등 진행 중인 전쟁이 화급하게 요구하는 과제부터 원자폭탄의 전술적 활용과 같은 미 육군의 장래 군사적 대비태세와 관련한 과제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이 그 시점에서 마주한 장·단기 군사적 과제 전반을 포함했다. 심지어 군사적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전쟁을 치르며 부딪친 민사와 군정, 한국인 인력의 동원과 활용,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효과적 운용 등도 분석 과제로 설정했다. ORO의 현장 연구는 전투작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장차 미군의 군사적 대비태세에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역할, 거기다 덧붙여 전략적 요구 사항,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민사, 군정 연구 등 군사(軍事), 민사(民事)를 가리지 않았다. 이들 연구는 당시 또는 장차 미 육군이 해외 파병에서 마주칠 온갖 문제들을 실험 또는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해당 시기에 ORO는 작전연구를 크게 전투작전, 병참·비용, 배경 연구, 일반 연구, 특별 연구로 분류했는데, ORO의 6·25전쟁 연구는 전투작전에 관한 것보다 심리전, 게릴라전, 한국인 인력 동원과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룬 일반 연구가 더 많았다. 특히 PROJECT 4와 POWOW로 분류된 심리전을 다룬 연구가 전체 과제의 절반을 차지했다. 과제 수와 결과물 분량으로 보면 ORO의 6·25전쟁 연구 중 심리전이 가장 중요했다. 미군 또는 ORO는 왜 그렇게 심리전 연구를 중시했을까? 미군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심리전 작전의 전술적 효과 또는 전략적 효과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 질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6·25전쟁이 그 이전에 미군이 치른 전쟁들과 매우 다른 전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군이 6·25전쟁 이전에 치른 전쟁들은 모두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다. 그 경우 적

의 성격이 명확했고, 미군은 적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6·25전쟁은 내전으로 시작했고, 우군과 적군이 같은 민족에다 언어, 문화를 공유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우군과 같이 한국어를 쓰며 살던 적군에게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다”고 설득하려면 표적이 지닌 이념의 형성 과정, 실제 불만 요소, 심리적 취약성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내전이라는 전쟁의 성격 때문에 전쟁의 정당성 자체가 전쟁 기간 내내 계속 문제가 되었다. 조국 통일을 위해 싸운다고 믿는 북한군에게 항복을 유도하는 전단을 뿌릴 때 그 전단은 단순히 생존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신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단의 메시지가 효과를 내려면 적군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어떤 순간에 그 신념이 흔들리는지, 어떤 메시지가 그 균열을 파고들 수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이것이 칸의 표적 취약성 연구가 탄생한 이유였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군이 ‘우리 편’의 정당성도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다. ORO-SP-51 서문은 이 점을 “우리가 우방이나 중립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 해왔다.”라고 표현했다.⁵⁸⁾ 6·25전쟁에서 미군은 적군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 전 세계 여론을 향해서도 심리전을 수행해야 했다.

6·25전쟁과 미군이 그 이전에 치른 전쟁들을 구별하는 또 다른 핵심 변수는 6·25전쟁이 이념 전쟁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2차 대전도 어쩌면 이념 전쟁의 성격을 가졌지만, 파시즘의 이념적 매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말했고, 식민지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있었다. 6·25전쟁은 내전으로 시작했지만

58) 위의 자료, iv쪽

미국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비화했고, 미국은 이를 냉전이라는 체제 대립으로 자리매김했다. ORO의 심리전 연구는 전장에 필요한 효과적인 심리전 전술도 개발해야 했지만 냉전체제와 냉전이데올로기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도 기여해야 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척도로 내세운 표적 취약성 분석이 내전으로 시작한 전쟁을 냉전의 틀로 수렴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했다.

ORO-SP-51은 심리전 과제들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인 ‘COMPASS’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연구였다. ORO-SP-51의 필자인 다이어는 COMPASS의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인 ORO-R-18 「국가의 도구로서 정치적 소통」도 집필했다. ORO-SP-51은 ORO-R-18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두 문서의 개념적 연결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ORO-SP-51 서문에 나온다. 다이어는 서문에서 장치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소통’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암시했는데, ORO-R-18은 ‘정치적 소통’을 ‘국가의 도구’로 자리매김했다.⁵⁹⁾ ORO-R-18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이어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벽에 걸린 무기』라는 제목의 저서를 1959년에 발간했다. 이 책은 ORO-R-18의 주장과 논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다이어는 이 책에서 ‘사상 전쟁’(war of ideas)이라는 틀로 냉전을 규정하면서, 이 전쟁에서 군의 역할은 전술 심리전 부대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정치적 소통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가진 군사적 한계를 탈피하여 이를 ‘정치적 소통’으로 재정의 하고,

59) 위의 자료, iii~v쪽. “ORO-R-18, Political Communication as an Instrument of State,” 1957. 6, by Murray Dyer

60) Murray Dyer, *The Weapon on the Wall: Rethinking Psychological Warfa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9

심리전을 외교, 군사, 경제와 함께 국가 통치술을 지탱하는 ‘사중주’의 일원으로 격상시켰다. 심리전이 단순한 선전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실행 맥락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도구라는 것이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부터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심리전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역사적 공백을 비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백악관 중심의 통합 지휘 체계와 전담 교육 기관 설립이라는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이어의 주장은 당시 미 육군의 사고 전환을 그대로 반영했고, 미 육군의 심리전 개념이 ‘전술 심리전’에서 ‘전략·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소통’으로 이동했음을 공식화했다.⁶¹⁾

그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지만 미국 군부가 냉전의 성숙 과정에서 군의 도구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보여준다. ORO의 6·25전쟁기 심리전 연구는 적군 병사들의 생존본능 자극이라는 전술 심리전의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 출발해서 적 취약성 분석이라는 연구 영역과 방법론 개발로 나아갔고, 그렇게 과학적 합리성의 언어로 포장한 심리전 연구 방법론에 의지해서 군부를 냉전기 전략 심리전의 수행 주체이자 핵심적 도구로 격상시켰다.

61) ORO-SP-51, 15~17쪽

〈참고문헌〉

1차 사료

“ORO Documents Published by FEC and EUSAK as of 15 September 1951,” ORO, FEC.

“Revised Summary of ORO Projects, Special Studies and Field Operations to May 31, 1952,” ORO, 1952. 7. 28.

“RAC Publications List,”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 McLean, Virginia, 1961.

ORO-T-1(EUSAK), “Radio in Korea,” 1951. 1. 31.

ORO-T-2(EUSAK), “A Preliminary Study of North Korean and Chinese Surrenders,” by Lessing A. Kahn, 1951. 2. 27.

ORO-T-4(EUSAK), “Evaluation of Effects of Leaflets on Early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by Kilchoon Kim and Ellis A. Johnson, 1951. 2. 20.

ORO-T-6(EUSAK), “Preliminary Evaluation of Psywar Leaflets and Broadcasts from IPOR POW Interrogation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Research, Inc., 1951. 2. 22.

ORO-T-10(EUSAK), “North Korean Propaganda to South Koreans (Civilian and Military),” by Fred H. Barton, 1951. 2. 1.

ORO-T-1, “Tactical Employment of the Atomic Bomb in Korea (TEABK),” 1950. 12. 22.

ORO-T-2, “Possible Operations Research in FEC Psychological Warfare,” 1950. 9. 14, by Paul M. A. Linebarger.

ORO-T-7,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by Kilchoon Kim, 1951. 3.

ORO-T-42, “A Study of Enemy Soldier Attitudes Toward Communism, American Democracy and the United Nations,” by Julius Segal, 1954. 2.

- ORO-T-184, "Civil Affairs in Korea, 1950-51," by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1952. 8.
- ORO-T-190, "Operation Punch and the Capture of Hill 440, Suwon, Korea, February 1951," 1952. 9.
- ORO-R-5, ALCLAD Final Report, "Protection of the Soldier in Warfare," Draft Report Completed 1952. 8. 1.
- ORO-R-13, "Analysis of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during the Winter," 1952. 10.
- ORO-R-18, "Political Communication as an Instrument of State," by Murray Dyer, 1957. 6.
- ORO-S-68, "Recommendation for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 10. 8, by Kilchoon Kim
- ORO-SP-51, "The POWOW TMs: An Assessment of ORO Psywar Research," by Murray Dyer & Julius Segal, 1955
- SP-138, "Projected Situation Scenario, Korea," 1960. 4.

단행본

- Dyer, Murray, *The Weapon on the Wall: Rethinking Psychological Warfa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9.
- McCloskey, Joseph F. and Florence N. Trefethen, *Operations Research for Manag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4.
- Schrader, Charles R. *History of Operations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rmy* Volume I: 1942-6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MH, 2006.
- Starr, Harvey, *Henry Kissinger: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4.

Thomson, Charles A. H, *The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 A History of a Federal Contract Research Center*, McLean, Virginia: RAC, 1975.

Tucker, Spencer C., ed.,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New York: Checkmark Books, 2002.

김을한, 『그리운 사람들』, 서울: 삼중당, 1961.

김을한, 『인생잡기』, 서울: 일조각, 1989.

논문

Trefethen, Florence N. “A History of Operations Research,” in Joseph F. McCloskey and Florence N. Trefethen, *Operations Research for Manag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4.

김을한, 「고 김길준 군을 보내며」, 『서울신문』 1951. 7. 27.

「주일대표부 참사관 김길준 씨 서거」, 『서울신문』 1951. 7. 23.

〈Abstract〉

The U.S. Army Operations Research Office: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War

Chung, Yong-wook

The 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 a civilian research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48 through a contract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deployed civilian scientists and specialists to the Korean War front from September 1950 onward. During the conflict, more than 150 ORO personnel served under the Far East Command (FEC)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 (EUSAK), with over half the organization's total staff assigned to the combat theater at any given time.

ORO's field research operated along two lines: producing studies and recommendations on ongoing operations, and gathering data for broader subsequent research. The scope of inquiry ranged from weapons and equipment performance, armor operations, close air support, and logistics, to the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utilization of Korean indigenous manpower, and civil affairs and military government — encompassing both immediate tactical demands and longer-term strategic requirements.

Most striking is that psychological warfare (psywar) research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all ORO projects in the theater. Working within the framework designed by Paul Linebarger, ORO pursued two principal lines of psywar

inquiry. The first evaluated the organization, conduct, and effectiveness of psywar operations — leaflets, radio broadcasts, and theater— level staff organization. The second, led by Lessing Kahn, developed target vulnerability analysis: a systematic psychometric study of North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held at camps in Pusan and Koje-do. Involving more than 5,100 POWs, this represented an unprecedented scale of enemy—soldier experimentation in American military history.

ORO's psywar research went beyond measuring tactical effectiveness. Because the Korean War was simultaneously a civil war and an ideological conflict, the research extended to constructing the conceptual foundations for Cold War psychological strategy. Murray Dyer's synthetic assessment reconceptualized psychological warfare as “political communication” and elevated it to a core instrument of statecraft. In this way, ORO's Korean War psywar research evolved from tactical field studies into the theoretical groundwork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s strategic psychological warfare doctrine during the Cold War.

Keywords : 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 Korean War, Psychological Warfare, Target Vulnerability Analysis, Prisoners of War, Paul Linebarger, Lessing Kahn, Kim Kilchoon, Cold War Knowledge Production, Political Communication